

지역 소식통

완주군, 지구의 날 기념 소등행사 개최

완주군은 제50회 지구의 날을 맞아 소등행사를 실시, 지구에 잠시 쉼표를 찍는다.

완주군은 지구의 날인 오는 22일 군청, 읍면 주민센터의 청사 조명 및 전자기기를 저녁 8시부터 10분간 일제히 소등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내 아파트 47개소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생활 실천을 전개한다.

특히, 관내 녹색아파트인 이서전북혁신1차 아파트에서는 얼음팩 수거 캠페인이 실시될 예정이다. 가정 내 재활용이 어려운 얼음팩을 수거해 로컬푸드 매장이나 재래시장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가정에는 얼음팩 5개를 20개 종량제 쓰레기 봉투로 교환해준다.

얼음팩 수거 캠페인은 오는 9월까지 녹색아파트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한편,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기름 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세계기념일이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외국어 자원봉사회 코로나19 방역 봉사

김제시외국어자원봉사회(회장 이원규)는 지난 17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저지를 위해 관내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자율방역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방역활동은 김제시외국어봉사회 회원 6명이 김제시노회회관 등 사람이 다수 모이는 집합시설을 대상으로 소독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회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분무소독기로 현관, 계단, 화장실 등의 문손잡이와 난간 등을 꼼꼼하게 소독하였으며 방역활동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위생수칙에 대해 홍보하기도 했다.

김제시외국어자원봉사회 이원규 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이 힘든 상황을 맞고 있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방역봉사를 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감염병이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형 청년정책 주목받다

## 완주군, 2020년 청년친화환경대상 '종합대상' 선정 청년기본조례 제정 · JUMP 프로젝트 수립 '결실'

완주군이 청년 친화적인 도시로 선정됐다.

완주군은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가 주관한 '2020년 청년친화환경대상'에서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청년친화환경대상은 청년 친화적 환경경조성에 기여한 자치단체와 국회의원의 업적과 공로를 표창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돼 올해 3회째를 맞고 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 입법, 소통 분야의 청년 기여도를 평가하는 청년친화 지수를 기준으로 대학교수, 회계사,

언론인 등 전문가와 청년선정위원 100여명이 수상 자치단체와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완주군은 올해 기초단체 종합대상으로 선정됐다.

군은 지난 2016년 청년전담팀을 신설하고 청년기본조례 제정, 청년기본계획 JUMP 프로젝트를 수립해 일자리, 주거,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으로 전반적인 청년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온 점을 호평 받았다.

특히, 주거분야의 청년취어하우스, 한달살기, 참여·교류분야의 청년네트워크단 운영, 청년참여예산제, 청년거



점공간, 청년축제 등을 통해 청년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에 주목을 받았다.

완주군은 앞으로도 '청년JUMP-UP 프로젝트'의 29개 실행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2020년 중점사업으로 '청년내일지원센터 운영', '청년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개학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학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초등생 온라인 개학 도우미

### 김제시, 학습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청년 일자리 제공 효과 기대

김제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초등학교 4~6학년 온라인 개학은 16일부터 시작되었으나, 김제시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감안해 20일부터 4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온라인 학습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환경의 학생과 일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청년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학습지원 도우미 참여자 선발은 일자리 알리미에 등록되어있는 청년과 공고일 현재 김제시에 주소를 둔 만 20세~50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취업자로서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143명의 신청을 받아 66명을 선발했다.

또한 학습지원 학생은 김제교육지원청과 학교를 통해 98명 학생의 신

청을 받아 형제자매 포함 1인 1가정 방문을 통해 온라인 접속방법과 학습 요령 안내 등 학생들에게는 온라인 학습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청년들에게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이 힘든 시기에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운영한다.

인재양성과는 지난 14일에 학습지원 도우미 대상으로 온라인 개학 원격수업 지원방법과 저작권법 관련 정보통신윤리교육,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기본수칙 등 사전교육을 이미 완료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온라인 개학에 어려움 없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 청년공감 실속형 청년정책 가속화

### 5분아 28개 사업 58억 투입 청년 위한 실질 정책 추진 예정

김제시는 지역의 미래이자 지역의 성장 발전을 이끄는 중심이 될 '청년'에 집중하고 청년이 공감하고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다양한 정책개발 및 추진을 위해 '청년이 살고 싶은 김제' 청년이 돌아오는 김제 실현'을 비전과 목표로 일자리, 창업, 주거·복지, 교육, 네트워크 총 5개 분야 28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 58억여원을 투입하여 2020년 김제시 청년정책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청년의 고용·주거·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김제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 오는 6월쯤 공포

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청년 종합 실태조사 및 정책 수요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청년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 확대·개선 방안과 청년친화도시 조성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모색 등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시 고유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한 행안부 공모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정규직 채용 확대를 위한 국비확보에 주력하고, 시장 공약사업으로 60여명의 정규직 채용 성과를 이루어낸 '청년인턴사원제'는 지원범위 확대 건의를 위해 정확한 성과분석을 거쳐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창업분야에서는 초기창업비용 지원과 교육·멘토링 등을 지원하여 지난해 전복 최다 30여명의 청년창업가를 배출한 '청년창업 지원 아리(All-RE)사업'과 청년창업농에게 초기 영농정착금을 지원하여 60여명의 전국 최다 청년창업농을 지원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청년창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업 순환 생태계를 구축하여 전국 최고의 청년창업도시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준배 시장은 "청년이 살고 싶은 김제, 청년이 돌아오는 김제 실현을 위해 고용·주거·복지·교육·소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지역아동센터협의회, 코로나19 극복 후원금 기탁

김제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회장 조은주)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사후에 달라며 김제시에 150만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이후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하여 김제시 관내 아동과 청소년 세대에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제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조은주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저희 지역아동센터도 각계 각층으로

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고마움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각 센터에서 실시한 정성으로 모은 성금이 도움이 꼭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사용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을 기탁해주신 김제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준 성금



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할 것이며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도록 김제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화답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보건소, 해외입국자 신속 격리·원정 대응

한국에 있는 딸을 만나러 왔다가 KTX 열차를 잘못 탄 해외 입국자가 완주군보건소의 신속한 '원정 대응'으로 임시생활시설에 무사히 격리됐다.

베트남 출신의 60대 중반 A씨는 완주군 상관면에 있는 딸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16일 한국에 입국했다. 딸이 적어준 쪽지와 공항 안내가 있었지만 한국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는 열차를 잘못 타는 바람에 이날 오후 4시께 KTX 포항역에 하차하고 말았다.

당황한 그를 발견한 포항시보건소 직원이 완주군보건소로 연락했고, 근무 중인 이재연 완주군보건소 감염병 관리팀장이 즉시 직원과 함께 구급차를 직접 운행해 포항으로 향했다.

"해외 입국자는 전원 진단검사와 자

가 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빨리 모셔 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날 오후 8시께 KTX 포항역에 도착한 이 팀장은 KTX 포항역사의 외국인대기소에 있는 A씨를 격벽 구급차에 태우고 밤 11시께 남원시에 있는 격리시설인 전북공무원교육원에 인계할 수 있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전파 우려를 없애기 위해 일반인의 교통과 분리해 해외 입국자에게 자차나 전용 택시, 전용 공항버스, 전세버스 등의 교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군보건소의 신속한 초기 대응 덕분에 A씨는 무사히 안전한 곳에 격리될 수 있었고, 감염병 전파 우려를 사전 차단할 수 있었다.

/원주=이종복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